

# 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신규 모집

## 3월5일까지 신청서 접수 적격 여부 확인 외식업·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법인 사업자 포장·배달 업소 신규적용 위생 청결 심사 거쳐 3월 중 결과 안내

나주시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가 큰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3월5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이며 올해부터는 법인 사업자(프랜차이즈 제외) 및 포장·배달 전문업소도 포함한다.

희망 업소는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가격과 위생, 청결상태 등을 심사 후 결정하며 3월 중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지정 업소 점검 및 재지정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 나주시 지역 착한가격 업소는 21개소로 신규 지정과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가격 안정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찰 설치,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비자가 착한 업소를 방문해 나주사랑카드 결제하면 총금액의 5%를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모집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물가로 인해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가 큰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 청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화순군, 최대 1600만원 지원

화순군은 23일 화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으로 푸드트럭 영업 신고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다.

지원 규모는 푸드트럭 1대, 1600만원까지 개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 장소는 한천 휴양림 내 오토캠핑장이자다.

신청은 3월5일까지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준비해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은 푸드트럭 공모신청서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확인해 선정할 계획이며 경합 시에는 공개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1)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맛의 즐거움을 전할 무한 열정을 지닌 청년 푸드트럭 운영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함평군, 12월 13일까지

함평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함평군은 23일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이 오는 12월13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함평군에 3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이며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서로 이뤄진다.

올해 보급 예정 물량은 총 257대로 상반기에 승용 90대, 화물 40대 총 130대이며 하반기에 승용 103대, 화물 24대 총 127대를 지원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13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용 전기 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5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이 최대 30% 추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ps)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점을 통한 대형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 건강한 학교 급식 만들기 '총력' 함평군, 유기농 쌀 품종 결정 등

함평군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함평군은 23일 2025년 함평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지난 21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함평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 함평군의원, 함평교육지원청 공무원 그리고 학부모단체·농업인단체·교사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공공 급식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회에서는 친환경 농산물과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단가, 유기농 쌀 공급 품종 결정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대안학교 총 46개교이며 총사업비 7억여원을 투입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유기농 쌀, 과일, 채소 등) 및 Non-GMO 식재료 구매 차액을 지원한다.

2026년 유기농 쌀 공급 품종은 '산동진'으로 결정됐다.

함평군은 함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합동점검을 통해 친환경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지속적인 공급업체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최우선으로 해 아동·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하춘 함평군 부군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동·학생들의 즐겁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지난 20일 곡성군 곡성읍에 위치한 예산어린이집 원아들이 곡성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소아과, 한방과 등 보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곡성군보건의료원, 어린이 눈높이 보건 체험학습

지난 19일 곡성읍에 위치한 예산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 30여 명이 곡성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23일 곡성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은 방문한 교사 및 아이들에게 내과, 안과, 소아과, 한방과, 예방접종실, 구강보건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 주요 시설을 소개하면서 시설별 역할에 대해 안내했으며 눈높이에 맞는 보건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했다. 아이들은 직접 청진기로 친구들의 배와 심장 소리를 듣는 체험도 했고 올바른 손 씻기 체험을 통해 손을 씻기 전·후 손에 남아있는 세균을 눈으로 직접 비교하고 확인해 보며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배웠다. 치과실에서는 치과 의자에 누워보고, 바람이 나오게 하는 기구를 사용해 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모형에 직접 치실질을 해보는 등 전반

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모형과 영상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보건 교육이 진행됐다.

곡성군의료원 관계자는 "곡성군 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대비 4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에 진입하면서 그동안 아이들 웃음소리가 귀했는데 보건의료원에 견학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해 직원들 또한 즐거워했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담양군, 통근형 농업사관학교 2기 교육

### 49세 이하 누구나 신청

담양군은 귀농 창업의 플랫폼 역할 수행 및 담양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오는 3월28일까지 농업사관학교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49세 이하로 영농 교육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지역과 직업,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2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1년 차

에는 농업기초이론, 농촌생활, 현장견학 등으로, 2년 차에는 주요 작물인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등 재배 기술 및 실습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5월8일 개강해 10월30일까지 주 1회 진행되며 교육 시간은 1회당 3시간씩 총 60시간이다.

농업사관학교는 농업인대학 운영 지침에 의거 교육과정을 편성했으며 농업체험실습센터 조성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통근형으로 추진

하고 2027년부터는 농업체험실습센터에서 체류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농업사관학교를 통해 미래 담양 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인이 꾸준히 양성되길 바란다"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담양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제1기 농업사관학교를 운영했다.

수료생 27명을 대상으로 학습분과 활동과 농업기술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하는 등 1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

